

수석보좌관회의

여러분도 뉴스 보도 들어서 알겠지만 그동안 국민 모두 걱정하고 있었는데 불행한 일이 어제 이라크에서 발생했습니다. 국민과 함께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. 그동안 테러에 대해서는 다 같이 우려를 표명해 왔고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. 특히 이번 사건은 군대나 공공기관과 달리 민간인을 상대로 한 것입니다. 민간인 테러는 더더욱 용납해서는 안 되는 비인도적 행위입니다.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.

우선 정부는 부상자 치료와 사망자 시신 운구에 각별히 협조를 해서 해주시고 이미 재외공관에 테러 특별 경계령을 내린바 있지만 다시 한 번 추가 테러가 없도록 경계를 각별히 하고 대책을 세워주십시오. 특히 교민보호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. 그리고 오늘 국가안보보좌관은 NSC상임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.